



排出施設 管理人이여 힘을 내자



李 興 周

〈環境廳公報官〉

I

말은 일에 항상 충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 분들의 곁에는 고고한 정취와 그윽한 향기가 있다.

그 자리가 세속적인 의미로 빛나는 자리이건 아니건 간에 말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

말은 자리에서 大小事를 막론하고 충실히 맡은 바 職務를 다하는 사람, 그 아름다움이 우리사회를 밀고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런분들의 노고가 마땅히 빛을 보는 시기가 와야 할 것이다.

배출시설관리인.

이분들도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진짜로 빛을 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날이 갈수록 산업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다양해지는 화학물질의 성장에 대응해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며칠전 배출시설관리인 몇 분과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 서로 격의없는 대화를 가졌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환경보전행정 에 몸담은지 어느새 6년이건만 아직까지 그들 보다 환경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環境保全은 法の 規制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環境保全이 絶실하다는 認識이 社會意識의 主流가 될 때, 그때야만 可能합니다” 라는 그들의 얘기에 마음 깊이 共感했다.

II

“사장님까지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보통 6~7 계단을 거쳐야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같은 줄짜는 입사한지 5년이 되었



어도 한번도 사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에는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사장님 (대표자) 과 제가 함께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회사 배출시설 관리인의 얘기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그들을 “땅개”라고 부른다고 한다.

밤낮 침전조, 저수조, 가스 배출구등 냄새나는 곳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별명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계속되는 다른 회사 배출시설관리인의 얘기는 “배출시설관리인으로 임명되어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승진 등 회사문제에 고민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우리 동료가 양심의 가책에 마음아파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며, 항상 배출시설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된대로 자가측정을 실시하거나 자가측정 대행업자에게 위탁 자가측정 기록부를 유지보전해야만 합니다. 이런일들은 배출시설 관리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층에서 진심으로 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70년대말까지 단속의 눈길을 피해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은 배출한 업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비절감을 이유로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및 약품을 적게 투입하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관리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걱정 목소리에 관리층의 인식부족, 관리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Ⅲ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회사안에서 근무하지만 우리가 가장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환경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것, 후손에게 자랑스런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보람을 갖습니다.

그 한가지만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음을 갖기까지는 5년이라는 마음의 담금질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축복받을 이야기 인가? 배출시설 관리인이여 힘을 내자.

환경보전을 위한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인 모두의 모임.

배출시설관리인, 환경보전민간운동가, 학계에 계시는 분과 공무원,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가진 민간인등 어느 누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산발적인 모임이 아닌 모든 환경인의 의지가 결집되어 추진력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는, 그러나 보람을 갖고 일하는 (아직까지 마음의 담금질이 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오리 모두의 가슴에 큐피트의 화살처럼 박혀 환경보전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의식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배출시설관리인들이여
모든 환경인들이여
다시한번 힘을 내자. *

